

다산포럼



박 종 권
호서대학교 시용합대학 교수

다산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숙제를 낸다. 먼저 힘써야 할 세 가지 일을 제시하더니 그에 대한 잠언(箴言)을 지으라는 거다. 이듬하여 '삼사잡(三斯箴)'이다. 다산은 "비스듬히 드러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지껄이고,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動容貌), 말을 하는 것(吐辭辭),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正顏色), 이 세 가지가 우선적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고 유배지에서 편지를 쓴 것이다.

다산은 또 '이 세가지는 바로 난폭함과 거만함과 어긋남을 멀리하고 미더움을 가까이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것도 못하면서 다른 일에 힘쓴다면, 비록 하늘의 이치에 통달하고 재주가 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식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꿈치를 땅에 붙이고 바로 설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주서어패'라는 책도 만들도록 했는데, 입지(立志)부터 처세(處世), 송절검(崇節檢), 원이단(遠異端)까지 12조를 제시했다. 율곡 이이가 지은 격몽요결(擊蒙要訣)을 본땀다. 격몽요결은 천자문을 갖 편

삼사(三斯)와 발몽(發蒙)

초학(初學)을 위한 책인데, "학문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일상생활을 마땅하게 해 나가는 것일 따름이다"라는 생각으로 지었다. 다산의 의도 역시 '먼저 인간이 되거라'쯤이었다.

그런데 '격몽(擊蒙)'의 뜻이 가법지 않다. 여기에서 '몽(蒙)은 단순히 사리에 어둡거나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다. 주역의 괘(卦) 이름으로 건(乾), 곤(坤), 둔(屯) 다음이 몽(蒙)이다. 주역학자 서대원 씨는 "몽(蒙)은 어린아이의 교육을 뜻한다"고 해설한다.

몽(蒙)괘는 동몽(童蒙) 발몽(發蒙) 포몽(包蒙) 곤몽(困蒙) 격몽(擊蒙)의 다섯가지 교육 형태를 제시한다. 동몽(童蒙)은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이자 순수한 도(道)의 경지로, 최고의 인격을 상징한다. 누구나 추구하는 목표이지만 쉽게 도달할 수 없다. 태어날 때의 순수함을 유지하며 자연과 합일(合一)을 이뤘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선시대 서당에서 천자문을 땀 아이들이 배우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의 책명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발몽(發蒙)은 출세와 입신양명을 위한 공부를 뜻한다. 오늘날의 법조인과 행정관료 나아가 권력자가 되는 길이다. 이른바 성공을 위한 공부이다. 하지만 그래 봐야 개인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공부는 끝까지 길(吉)하지 못하고, 한창 좋은 시절이 지나가면 어렵고 곤경에 처한다(吝)고 한다. 포몽(包蒙)은 포용과 화합의 공부이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다. 출세에 어두워 가정은 돌보지 않는 것보다 수신제가(修身齊家)를 우선하는 게 그나마 도

(道)에 가깝다는 거다.

곤몽(困蒙)은 어렵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데 억지로 하는 공부이다. 컴퓨터가 흥미로운데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재미없는 법과대학을 거쳐 사법고시에 내몰리는 교육을 떠올리려 된다. 이런 공부는 당연히 곤난(吝)의 길이다. 그래서 당장 실용성이 없더라도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매진하는 동몽(童蒙)이 길하다는 거다. 아침에 도를 깨우치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경지쯤일까. 순수하고 온전한 학문만이 궁극의 깨달음으로 이끌지 않겠나. 격몽(擊蒙)은 현대의 의무교육이다. 어린아이들이 도적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제어하는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 최소한의 기초교육이다.

대통령선거에 나선 이른바 잠룡(潛龍) 상당수가 발몽(發蒙)의 전형으로 보인다. 예컨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발몽 이용형인(發蒙利用刑人)'에 꼭 들어맞는다. 형인(刑人)은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오늘날의 판공사가 아닌가. 신분 상승과 출세로 한때 잘 나갔지만, 이미 얻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 결국 어렵고 곤란에 처한다(以往吝)는 패턴인데, 글세다.

다른 후보들도 이런저런 발몽(發蒙)과 곤몽(困蒙)에 시달리는 기색이 완연하다. 포용과 화합의 포몽(包蒙)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 모두가 다산이 권유한 삼사(三斯)에 마음을 쓰고, 동몽선습과 격몽요결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유권자도 좀 버젓한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수필의 향기



박 용 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운주사에 가십니까. 와불님을 보러 가십니까. 천불 전탑을 보러 가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가십니까.

세상일이 꼭 운주사 이야기 같지요. 삶은 못 이룬 한바탕의 꿈인지 모릅니다. 누구나 마음이 답답해지면 찾아 나서는 곳이 운주사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운주사는 호기심을 자극하기 충분하지요. 누구나 운주사 장면에 대해 한마디씩 하지요. 운주사는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딱히 아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운주(雲住)가 무슨 뜻인지 모르시진 않으시지요. 천불동에 가고 계시다니, 당신도 아마 구름 속을 걷고 싶은 모양입니다.

저도 그랬답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저도 늘 와불님만 보러 갔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결이 앙상해 '거지탑' 또는 '송장탑'이라고 부르는 입구의 부처님만 뵈고 온답니다. 누군가 나뭇가지는 탑신을 띄우려 처럼 그냥 엮어 놓은 것 같은, 아무리 봐도 형편없이 앙상한 뼈만 드러낸 채 남달라지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운주사 비밀을 살짝 알려 드릴까요?

서 있는 탑, 저를 닮은 부처님 말입니다.

천불동에 들어서면 끝까지마다 부처님마다 이끼가 옷에 묻을 듯 푸른 전설이 들려오지요. 대부분은 미완의 슬픈 이야기들이지요. 와불과 명당탑 설화가 그렇고, 연장 바위와 도선 국사 이야기, 석조불감 문짝 이야기가 그러하지요.

그 이야기의 근원을 찾아서 국문학자는 떠도는 전설을, 고고학자들은 발굴 작업과 기초 해석을, 사학자들은 역사와 배경을, 건축학자들은 구도와 배치를 붙들고 웅맹 정진하였지요. 하지만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듣지 못했지요.

이들은 주로 학자들입니다. 지식과 학문은 능통하지만, 중요한 불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본질에서 헛나갔던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먼저 묘법연화경에 나오는 견보품탑을 보면 대요설보살의 요청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분신하시어 지방세계에 설법하는 모든 부처를 모이게 한 후 사부중과 함께 모두 허공에 있게 하신 후, 허공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는 공중 법회를 엿니다. 운주사는 바로 그 공중의 장면을 지상에 재현해 놓은 것입니다. 운주사 보배탑에는 석가여래와 다보여래가 계시고 기타 부처들은 사부중을 뜻합니다. 칠성바위의 배열 상태는 복두칠성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와 반대가 되는 쪽에서 보는 복두칠성으로 이는 천불전탑 공간이 지상이 아니라 하늘, 곧 공중에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지요. 또 공사바위는 한자를 달리하여 '공중의 운주사'의 준말로 운주

사가 지상이 아니라 복두칠성보다 높은 하늘 허공중에 있음을 나타낸답니다.

실패탑 역시 하늘 천(天)자의 조형물로 원반형 석탑이 아니라 자형상의 조형물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기하학적 문양에 대해서도 세존께 공전을 받들어 올리는 대목의 화성유품을 근거로 하나하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운주사를 한 바퀴 돌아 나오시나오. 집안 대대로 불심이 깊은 박촌지 선생님의 '내가 보는 운주사 와불이 사라진다'의 극히 일부 이론만 소개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운주사의 궁극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믿지만 당신은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 책을 일독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가벼워졌습니까. 부처님의 목소리를 들으신 게지요. 우리 안에 부처님도 예수님도 있다고 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운주사, 엿보이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있어야 세상이 보이고 운주사도 보일 겁니다. 운주(雲住)는 액면대로 '구름 속에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세존께서 구름 속에 머무르시며 설법을 하다'라는 의미지요.

운주사에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도 당신은 이미 구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주말 어느 때라도 한번 그 구름 속에서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들어 보시지요. 그리고 세상사 고달픔에서 벗어나 잠시 마음속에서 천 개가 되도록 탑을 하나둘 세워 보지 않으시렵니까.

기후변화 시대가 요구하는 안전한 물 관리

강우를 기록했다. 그로 인해 섬진강댐은 100년 빈도로 설계된 계획 홍수량을 초과하였고,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경험해야 했다.

올해는 작년과 또 다른 양상의 기상 변동성도 경험하고 있다. 남부지방은 역대 다섯 번째로 짧은 17일간의 장마와 연이어 발생하는 폭염으로 용수공급에 필요한 강수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지역적 강우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역별로 극한 상황에 대비하는 심도 있는 고민과 다양한 지혜가 모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의 불확실성과 더불어 보다 종합적이고 고도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영·섬유역분부는 변화하는 물 관리 여건과 유역 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수요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개선 노력들을 이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홍수기 전반기와 후반기로 세분화하여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을 동시에 고려한 댐 운영 관리를 시행중이며, 작년과 같은 기상이변과 기후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수문 방류 24시간 전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주민참여형 댐 홍수관리 소통회의를 운영 하는 등 지역민과의 공감대 향상과 소통 강화 노력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불규칙한 기상이변과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대된 개선 방안들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역과 댐, 그리고 하천의 통합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빅데이터, IOT기술,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영상 분석과 AI 활용과 같은 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 노력도 이행되어야 한다. 또한 댐과 하류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유역 내 관계 기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홍수 조절 용량이 부족한 섬진강댐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댐 재평가와 섬진강댐 공급 체계에 대한 합리적 재배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왔지만, 최근의 재난 상황들은 우리의 물 관리 체계와 시스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들었다. 이제는 기후변화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분부는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우리 지역민들의 지혜를 거울 삼아 우리 유역의 수자원 시설들이 지역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社說

열심히 땀 선수들 그대들 있어 행복했어라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도쿄 올림픽이 엇그제 막을 내렸다. 비록 무관중 경기로 치러졌지만 그래도 무사히 1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로 세계 16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메달 색깔과 숫자나 등수는 중요하지 않았다. 팬들은 결과보다 과정에 주목했다. 선수도 관중도 모두 즐긴 한 판의 축제였다.

4위를 차지한 여자배구 대표팀과 주장 김연경 선수는 성적만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다. 불굴의 투지로 전력상 우위였던 강팀들을 차례로 꺾었다. 비록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패했지만 승리보다 더 값진 감동을 안겨 주었다. 황선우 선수는 서양 선수들의 전유물인 수영 남자 자유형 100m에서 5위를 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69년 만에 최고 성적이다.

육상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24년 만에 한국기록(2m35)을 새로 쓴 뒤 가볍게 메달을 놓쳤지만 다시 도전하겠다는 희망을 말했다. 여자 역도 최중량급 이

선미 선수와 남자 다이빙 우하람 선수도 밝은 모습으로 2024년 파리를 기약했다.

태권도 국가대표 이다빈 선수는 결승에서 져지만 미소를 지으며 상대 선수에게 엄지척을 해 보였다.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선사한 장면이다. 비록 메달을 따진 못했지만 '국민 여동생'으로 떠오른 탁구의 신유빈(17)도 경기를 보는 내내 우리를 미소짓게 했다.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으로 메달을 수확한 선수는 말할 것도 없다. 근대 5종에서 한국에 처음 메달을 안겨 준 전웅태, 여자체조 도마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여서정, 한국체조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을 안긴 남자 기계체조 신재환, 양궁 금메달 대량 수확 주인공들이 '신공' 안산과 김제덕 등 우리 젊은 선수들의 대활약 또한 대한민국에 희망을 선물했다.

메달을 땀만 못 땀만 꺾이지 않는 투혼과 도전으로 팬데믹에 지친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 준 선수들. 이들 모두가 올림픽 영웅들이다. 이들이 있어 올림픽 기간 동안 내내 행복했다. 조사다.

섬진강 수해 참사 1년 배상은 언제쯤에나

지난해 8월 섬진강 유역 물난리로 여덟 명이 사망하고 3725억 원의 재산 피해와 43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지만 삶의 터전을 잃은 상당수 주민들은 여태껏 집으로 돌아가지도,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다.

구레 주민들이 엇그제 정부의 조속한 피해 배상을 촉구하며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주민들은 지난해 물난리 피해가 집중됐던 양정마을과 구레 5일시장 일대에서 수장된 소 위령제를 지내 데 이어, 30여 대의 트럭을 몰고 읍내를 돌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추석 전 100% 국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구레군에서는 지난해 수해로 1149명의 이재민과 1807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주택 완파로 살 곳을 잃은 50

가구에 임시 주택을 지원했지만 지금까지 귀가한 경우는 두 가구에 불과하다. 나머지 48가구는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폭염을 견디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엇그제 섬진강 수해가 집중호우 및 댐 운영 관리 미흡, 하천 정비 부족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주민들은 과도한 방류 등 정부의 댐 관리 실패로 인한 재난이라면서 국가가 피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레 주민 1800여 명은 지난 2일 환경부 등 11개 기관을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1000억 원 규모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피해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돼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고, 이들 주민들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하다.

無等鼓

중주(縱走)의 사전적 의미는 '능선을 따라 산을 걸어 많은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일'이다. 대표적인 중주 코스로는 '지리산 중주'를 꼽을 수 있다. 구레 화엄사 또는 성삼재에서 출발해 노고단·백소령·세석평전·장터목을 거쳐 지리산 최고봉인 천왕봉(해발 1915m)에 오른 후 중산리나 대원사로 하산하는 코스이다. 대학 시절 난생 처음 화엄사에서 중산리까지 2박3일 동안 중주를 마쳤을 때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땀가 통과의례를 거쳤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땀통중주’

그 다음 도전은 호남 정맥과 백두대간 중주였다. 학교에서 배운 '태백산맥'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지리 개념인 '백두대간'(白頭大幹)이란 말이 새로웠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여암 신경준 선생이 정리한 지리서 '산경표'(山經表)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줄기는 대간 1개, 정간 1개, 정맥 13개로 이뤄져 있다.

이후 1990년대 중반, 광주일보의 장기 시리즈 '백두대간을 찾아서' 취재진 일원인 두 발로 밟았다. 능선길을 걸으며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 산을 물을 건너지 않는

다'(山自分水嶺)는 우리 고유의 지리 개념을 직접 확인하며 탄복하기도 했다.

최근 해남 땅끝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방대까지 산줄기를 따라 중주한 한 산악인이 눈길을 끌었다. 41년간 근무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나중대(61) 씨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땅끝에서 휴전선 밑 통일전방대까지 1350km를 19개월에 걸쳐 시절 난생 처음 화엄사에서 중산리까지 2박3일 동안 중주를 마쳤을 때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땀가 통과의례를 거쳤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다.

그동안 이어지며 국토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른다는 시작점과 끝점의 첫 글자를 따서 '땀통중주'로 이름 붙였다.

나 씨는 대장정을 마치고 최근 펴낸 산행기 '땀통중주'(한솜미디어 刊)에서 이렇게 말한다. "땀통중주는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많은 이들이 자신과의 싸움을 위해 국토 종단에 나선다. 앞으로 도로 또는 산줄기를 따라 두 발로 걸어서 백두산까지 갈 수 있는 좋은 시절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송기웅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전남본부	220-0642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